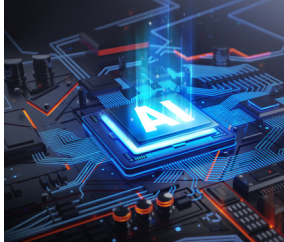




2025
VOL.02

지식공유 브리프



개발협력/지식공유 이슈톡

지식공유사업(KSP)이 나아갈 방향
핀테크(디지털금융)의 발달과 소득 불균형



개발협력/지식공유 동향 분석

칠레 핵심광물 개발 현황과 한-칠레 공급망 협력 방안
한-호주 기술협력 사례로 본 공급망 안정화



KSP 포커스

[2024/25 온두라스 II KSP]
인프라 및 교통정보시스템 개발 전략 수립
중소기업 발전 지원을 위한 캄보디아 신용보증공사의 지식공유 여정



CID 연구포커스

디지털무역과 국제개발협력의 과제 




YKSP 소식

이봐, KSP 해봤어? (선배 YKSP 인터뷰)



행사

제3회 국제개발협력포럼: 미중갈등과 트럼프 재선 상황에서
동아시아의 공급망 재편 
제4회 국제개발협력포럼: 에이전틱 AI 시대의 미중 기술경쟁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 이 자료는 국제개발협력/지식공유 현안에 대한 이해증진과 국제개발협력센터 업무/성과 홍보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한국개발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지식공유사업(KSP)이 나아갈 방향



KDI국제정책대학원
 손 옥

wooksohn@kdischool.ac.kr

지식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은 한정된 개발협력 재원으로 협력대상국 정책수요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전략 수립 과정에서 2004년 도입되었다. 금융 지원과 물적 공여 등의 기존 개발원조 모델은 절대빈곤 완화에 일정 부분 기여했으나, 개발도상국이 주도적으로 개발의제를 수립하고 추진하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지는 못했다는 한계에 초점을 맞춘 전략이었다. 여기에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된 한국의 개발 경험에 대한 지식이 비교우위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하였다. 한국은 전쟁 후 정부 주도의 개발, 민주화, 외환·금융 위기 극복 등 현재 발전 과정에 있는 저개발국과 중소득국가에 유용한 정책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었다.

KSP는 2004년 이래 한국의 발전 경험과 지식을 국제 사회와 공유함으로써 협력대상국의 경제·사회 발전 계획 수립과 추진을 지원하는 데 기여해 왔다. 또 사업 수행 초기의 시행착오를 거쳐 지난 20년간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사업의 성숙화 과정에서 많은 제도가 실질적으로 개선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의 질적·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급변하는 대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대응하여 KSP의 향후 발전방향 도출은 크게 네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미래지향적 사업구조 설계이다. KSP의 목적을 다시 정립하고 그 방향성에 따라 유형별로 사업을 설정 및 추진해야 한다. 이에 부응하여 국제기구·여타 공여국 등과의 삼각협력, 현지파견 전문가 프로그램, 민관협력 프로그램, 경제협력 프로그램형 KSP, 다년도 사업 확대, 사업기간 탄력적 운영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 설계를 고려해야 한다.

둘째는 KSP의 전문성·효과성 제고이다. KSP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로, 협력국 선정을 시스템화하고 대상 주제 선정도 한국이 모델 국가로 형성된 분야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또 지식공유사업은 사업수행 2년 전부터 시작되는 심의 단계를 축소하여 시의성 있게 정책자문을 하는 것이 절실하다. 아울러 사업수행에 참여하는 사업관리자, 연구자, 고문의 전문성을 증대하도록 전문영역 및 평판에 바탕을 둔 전문가 풀을 구성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셋째는 KSP의 지속성·안정성·효율성 강화이다. KSP 사업은 매년 발주 형식으로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다 보니 안정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낭비가 크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사업의 출연금 예산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이 협의해 법·규정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가장 효과적인 최종 산출물 생산, KSP 품질관리 모니터링, 지식공유사업의 시너지 확보를 위한 수행기관 간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

마지막은 KSP의 평가체계 확립 및 성과 확산이다. 명확히 정의한 성과를 바탕으로 KSP 성과평가 및 결과환류 프로세스를 강화해야 한다. 또 KSP 사업이 국제사회에서 확산하도록 리브랜딩(re-branding)을 포함하여 KSP가 생산한 지식자산의 체계적 축적과 디지털화로 국제적 공유 등 확산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식공유는 1970년대부터 국제개발협력에서 추진되어 온 기술협력(technical assistance)의 일환이다. 기술협력은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수(learning from)하는 모델에서 지식을 공유하는(learning with) 모델로 진화해 왔다. 나아가 지식공유는 역량개발(capacity building) 개념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따라서 KSP는 대한민국의 소프트파워 증진, 경제협력, 공공외교 관점에서 기여도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킬 가치가 큰 사업이다.

KSP 사업은 앞으로 협력국의 수요 주제 변화, 선진 공여국과 품질 경쟁 등 많은 도전과제에 맞닥뜨릴 것이다. KSP 사업의 지속성과 효과성을 확보하면서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지식공유사업으로 거듭나려면 특히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첫째, 우리 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에 맞추어 KSP 사업 역시 전반적인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틀 안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재설정해야 할 것이다. 이 방향성에 따라 KSP는 단일 부처의 사업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범정부 사업으로 확대해 나가고, 이를 위해 대표적 유무상 원조기관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물론 기타 관련 기관과 협력하는 범위를 넓혀 나갈 것을 제안한다.

둘째, EU를 비롯한 유럽 공여국의 경제협력 강조 기조에 비추어 KSP의 방향성도 한국의 발전 경험 공유에서 더 나아가 현안정책 컨설팅과 경제협력 기초조사 등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협력국 정부만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민간을 포함하는 민관협력 사업으로 자연스럽게 전환되는 사업 형태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여타 공여국의 지식공유사업과 협력해 공동 지식공유사업 수행 및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방법론과 관련해서는 SI를 활용한 지식관리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추세를 감안하여 SI를 활용하여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데이터를 축적하여 KSP 결과물의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KSP는 이제 스무 돌을 지나 또 다른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지식공유사업은 협력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고 우호적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국제협력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매우 유용한 국제개발협력사업이다. KSP를 통해 우리나라가 국제개발협력에서 선도적 지위를 확보하는 데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쏟아야 할 때이다. ▣

핀테크(디지털금융)의 발달과 소득 불균형



인천대학교 무역학부
이 중 화

joelee@inu.ac.kr

핀테크는 어떻게 경제를 바꾸는가?

‘핀테크(FinTech)’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모바일 네트워크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기존의 금융서비스를 더 빠르고 저렴하며 접근성을 높이는 혁신이다. 새로운 결제수단의 수준을 넘어 금융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활용성을 높이며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표적으로 모바일 결제, 디지털 대출, 클라우드 펀딩, 오픈뱅킹, 암호화폐 등 다양한 서비스가 기존 금융의 영역을 빠르게 대체하거나 재구성하고 있으며, 국내는 물론 국경을 넘나드는 플랫폼 생태계가 빠르게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산업 트렌드를 넘어 경제 전체의 생산성과 자본 배분 효율성 향상이라는 거시적 효과로 연결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이용자의 비금융 정보를 활용해 대출 가능 여부와 조건을 인공지능을 활용해 산출하고 있다.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전통적인 은행이 아니더라도 신용 분석을 기반으로 대출 가능 금액을 계산하고 대출 은행과 연결하는 구조는, 개인과 소상공인의 자금 접근성을 크게 확대시킬 수 있다. 핀테크는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거래 비용을 감소시킨다고 믿는다. 이와 동시에 금융소외계

층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며 자원의 흐름 자체를 바꾸고 있다.

핀테크는 경제성장을 촉진하는가?

금융 발전이 경제성장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다수의 연구로 입증되어 왔다. Beck, Levine, and Loayza(2000)는 금융기관발전(Financial Intermediary Development)이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을 상승시키고, 이로써 경제성장을 유도한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금융의 역할이 단순한 자금 중개를 넘어 자본이 생산적인 분야로 흐르도록 돕는 ‘자본 배분 메커니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 효과가 항상 지속되거나 일관된 것은 아니다. Sahay et al.(2015)은 일정 수준을 넘는 금융 심화가 오히려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과도한 금융(Too Much Finance)’은 자본이 비생산적인 부문에도 쏠리게 만들고, 이는 거품과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개발협력
지식공유
이슈 톡

핀테크 역시 이와 유사한 양면성을 띤다. 대출 조건을 완화하고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기술이 일견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비생산적이거나 고위험 부문에 자본이 집중될 수 있다. 이는 특히 규제가 미비한 국가나 제도적 장치가 미성숙한 시장에서 더 큰 위험을 내포한다.

● 핀테크와 불평등: 모두에게 기회일까?

핀테크가 지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회적 가능성은 바로 불평등 해소이다. 금융 접근성이 낮은 계층에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득 불평등이나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Demirgüç-Kunt and Levine, 2009). 세계은행은 이 중요성을 인지하고 국가별 Global Findex 데이터를 측정해 보고했다(Demirgüç-Kunt et al.,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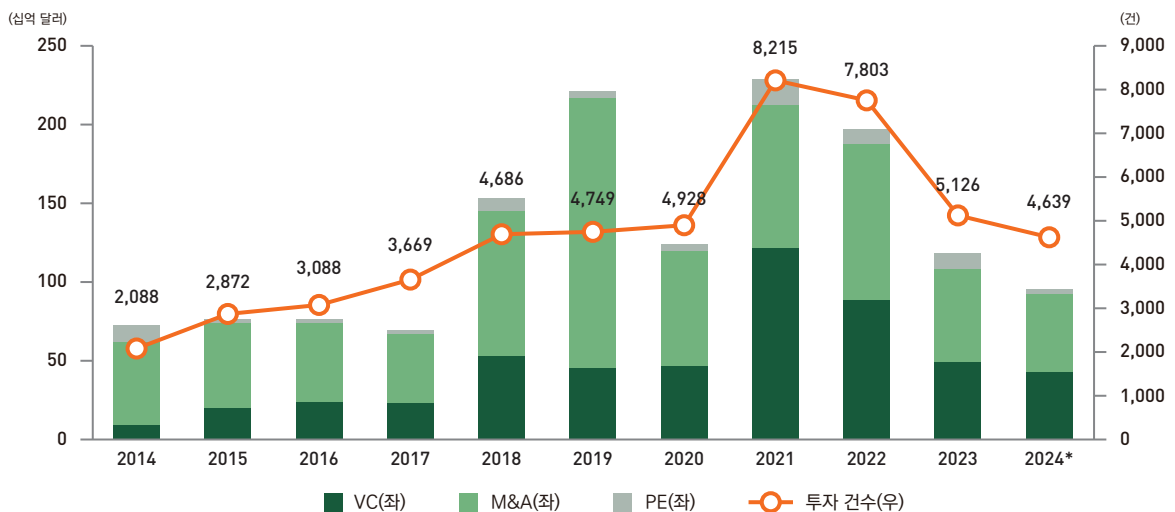
그러나 모든 핀테크 서비스가 자동적으로 포용적 효과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Banerjee et al.(2015)은 일부 가구에서는 사업 수익이 증가했지만 대다수 가계에서는 소비자 교

육 수준 등 실질적 삶의 질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즉, 신용이 공급된다고 해서 곧바로 사회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Bakija et al.(2012)은 높은 임금을 받는 금융업 종사자들 때문에 소득 불평등이 증가한다고 해석한다.

또 Ozili(2018)는 디지털금융의 확산이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배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디지털 접근 능력이나 기술 이해도가 낮은 집단은 정보에 기반한 금융서비스 대상에서 배제되며, 오히려 기존의 불균형이 심화할 수 있다. 비대칭 정보,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 알고리즘 편향 등은 소득분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이다.

결국 핀테크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포용적 혁신으로 기능하려면 기술 혁신뿐만 아니라 제도적 보완, 규제 체계, 사회적 인지도가 병행되어야 한다. 기술은 도구일 뿐, 그 효과는 결국 사회가 어떻게 설계하고 운용하는가에 달려 있다. ▣

글로벌 핀테크 투자 동향



자료: 삼정KPMG.

칠레 핵심광물 개발 현황과 한-칠레 공급망 협력 방안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실
전문연구원 강 나 연
nykang@kdi.re.kr

칠레는 세계적인 자원 부국이며, 풍부한 광물 자원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구리는 2023년 기준 매장량 세계 1위이자 전 세계 생산량의 약 23%를 차지하고, 리튬은 매장량 세계 1위, 생산량 기준

으로는 호주에 이은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오랜 기간 광물 자원은 칠레 경제의 핵심 수출 품목으로 기능해 왔으며, 최근 반도체,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기술 전환 시대를 맞아 전략적 가치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표 1〉 칠레 주요 광물 매장량(2023)

광종	단위	칠레(A)	세계(B)	A/B(%)	세계순위
리튬	톤	9,300,000	28,000,000	33.2	1
동	천 톤	190,000	1,000,000	19.0	1
레늄	kg	1,300,000	Large	-	1
은	톤	26,000	720,000	3.6	7
아이오딘	톤	610,000	6,200,000	9.8	2
몰리브데넘	천 톤	1,400	14,000	10.0	4

자료: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자원정보서비스(접속일: 2024년 11월 12일).

칠레의 광물 자원은 국가 소유로 규정되어 있으며, 민간 기업은 정부로부터 광업권을 취득하거나 독점적 개발 지위를 얻어 사업에 참여한다. 리튬의 경우, 칠레 정부와의 배타적 허가를 바탕으로 칠레 기반의 SQM, 미국 기반의 Albemarle 두 기업이 독점적으로 개발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칠레 정부는 국가 주도 리튬 개발을 본격화하며 국영기업인 칠레구리공사(Codelco)를 중심으로 민관협력 방식 개발 구조로 전환하고 있다.

2023년 발표된 ‘국가 리튬 전략(National Lithium Strategy)’은 이러한 구조 전환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전략에 따르면, 향후 리튬 개발은 국가 주도 또는 국영기업이 다수 지분을 확보하는 민관협력 방식으로만 가능하게 된다. 또 단순한 채굴을 넘어 정제, 가공, 수출까지 전 과정을 국가가 관리해 산업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리튬 채굴은 배터리 최종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배터리 소재와 부품 생산 과정에서 대부분의 부가가치가 발생한다. 이에 배터리

가치사슬 내에서 자국 내 가공 및 부품 생산 비율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리튬 생산혁신 위원회'를 설치하여 리튬의 부가가치 창출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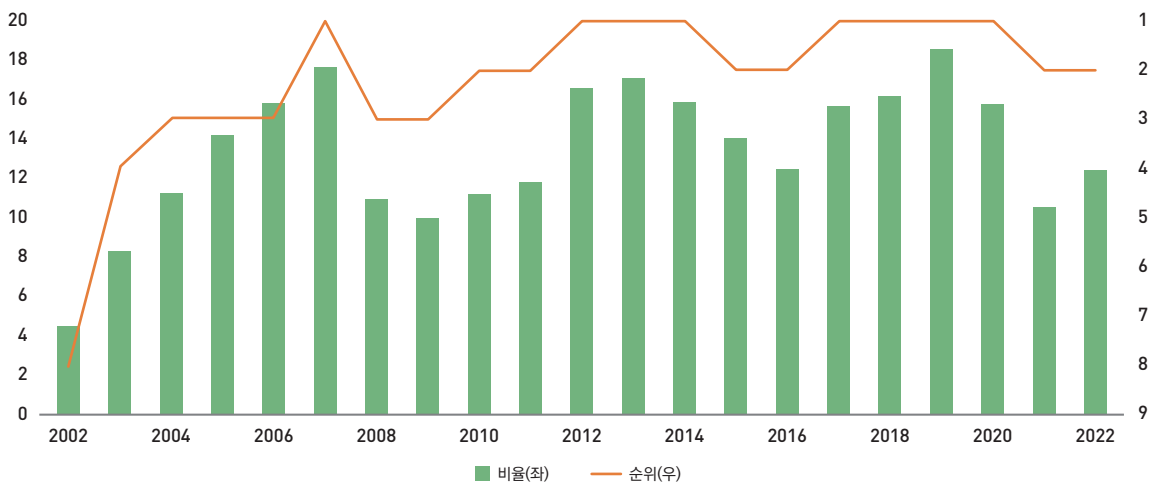
또 현재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정제련에서도 '국가 제련 및 정련 전략'으로 탈중국화와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자국 내 정제련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아시아로 원석을 운반할 때 발생하는 탄소 감축에도 기여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즉, 칠레 정부는 리튬 등 전략 광물에 대한 일정 수준의 통제권을 유지하면서도 자국 내 산업 역량 강화와 가치사슬 참여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현재 공급망의 상류 단계인 채굴, 탐사에 집중된 산업 구조를 중·하류까지 다각화하고자 한다.

칠레는 핵심광물 분야에서 다양한 국가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중국은 칠레의 주요 경제 파트너이며, 2023년 칠레의 대중국 수출액은 전체 수출액의 약 40%를 차지했다. 원석은 칠레에서 생산하고 정제련은 중국에서 진행하는 생태계가 오랜 기간 유지되고 있으나, 정제련을 자국 내로 유치하려는 노력을 지속하면서 향후 경쟁관계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국영기업 중심으로 생산 거버넌스를 개편하면서 일부 중국 기업과 마찰도 확인되고 있다.

미국과는 미중 갈등, 지리적 인접성 등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갈 여지가 있다. 칠레는 중남미에서 유일한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 회원국이며, 2003년 FTA를 체결하였다. 특히 리튬 삼각지대라고 불리는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칠레가 전 세계 리튬 매장량의 절반 이상을 보유한 상황에서 미국 주도로 2022년 6월 출범한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MSP)에 라틴아메리카 국가가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이 국가들이 BRICS 주도의 광물 파트너십 참여를 논의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미국이 칠레와의 협력에 더욱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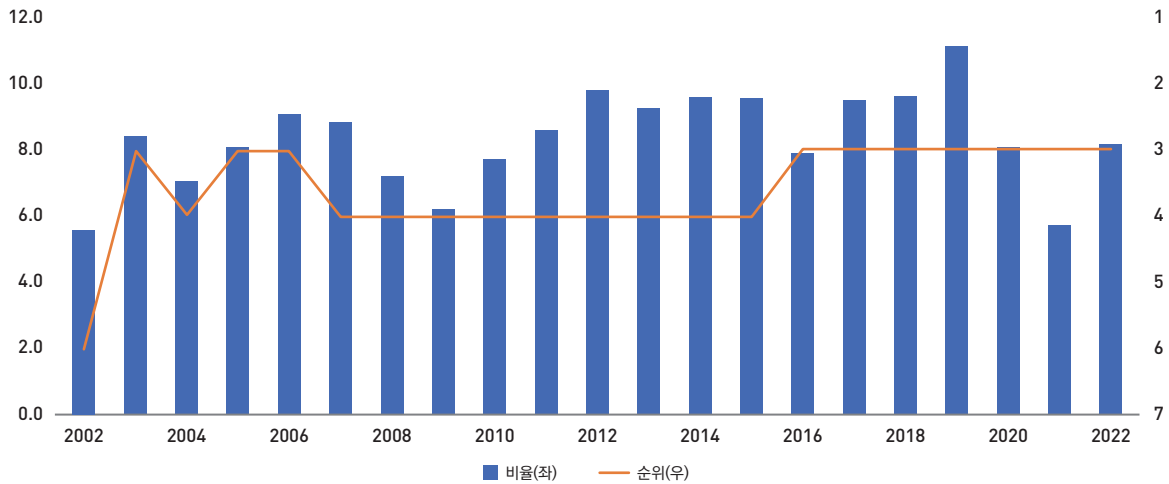
한국과 칠레는 2004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이래 안정적인 경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자원 분야에서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해 왔다. 2022년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고, '한-칠레 자원협력위원회'에서 자원 정책, 기술 협력, 광산 개발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다루어 왔다. 가장 최근 개최된 2024년 제5차 자원협력위원회에서는 리튬 등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과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 투자 활성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2022년 기준 한국 핵심광물 수입에서 칠레는 2위 수입국이며, 칠레에서도 한국은 핵심광물 수출 3위 국가이다.

[그림 1] 한국 핵심광물 수입에서 칠레의 비율



자료: CEPII BACI 데이터를 이용하여 계산.

[그림 2] 칠레 핵심광물 수출에서 한국 비율



자료: CEPII BACI 데이터를 이용하여 계산.

민간 부문의 경우, LS-Nikko 동제련이 Codelco와 협력하여 귀금속 광산을 운영하고 있다. 또 최근 진행된 대규모 리튬 개발 프로젝트에 포스코홀딩스와 LG에너지솔루션이 참여 의사를 밝히는 등 협력을 확대 중이다. 한국은 공급망 다변화 전략의 일환으로 칠레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칠레 역시 한국을 기술력과 생산 역량을 갖춘 안정적인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배터리 생산 기술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고, 칠레는 양질의 리튬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두 나라의 협력은 상호보완적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구조이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 시기의 '관세 전쟁'은 글로벌 공급망에 심대한 충격을 주었으며, 특정국에 의존도가 높은 산업 구조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속에서 세계 각국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자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 파트너를 모색하고 있는 지금이 한국과 칠레의 중요한 협력 기회일 수 있다.

다만 실질적으로 협력을 확대하는 데는 몇 가지 과제가 존재한다. 양국 간 협력 사례가 아직 제한적인 만큼, 서로의 법·제도, 허가 절차, 규제 체계 등 기업 운영에 필수적인 제도적 환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므로 활발하게 정보를 교류해야 한다. 또 채굴에 필요한 담수 확보 문제, 전력, 물류, 정제 등 제반 인프라 개선, 환경 보호와 원주민 공동체와의 이해관계 조율도 주요 도전 과제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한 투자와 자원 거래를 넘어 기술 협력, 환경 기준 정립, 사회적 수용성 확보 등 다층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면 국제 공급망이 점차 복잡하고 경쟁적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

주: 상세한 내용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제개발협력의 역할 및 방향: 기술협력을 중심으로(한국개발연구원, 2024)" 참조.

한-호주 기술협력 사례로 본 공급망 안정화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정책자문1팀
전문연구원 **전 영 진**
yjjeon@kdi.re.kr

청정에너지와 첨단산업이 미래 성장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21세기의 산업 혈액'이라 불리는 핵심광물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세계적인 광물 부국인 호주는 단순 자원 수출국에서 글로벌 공급망의 전략적 허브로 도약을 모색 중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과 호주 간 기술협력은 공급망 안정과 미래 성장의 열쇠로 주목할 만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 호주의 전략: 자원국에서 공급망 허브로

호주는 2023년 「핵심광물 전략 2023-2030」에서 채굴을 넘어 가공, 첨단산업 연계, 일자리 창출까지 아우르는 산업 고도화 청사진을 제시했다. 2022년 말 기준, 호주에서는 300억~420억 호주달러 규모의 81개 핵심광물 프로젝트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이 전략은 국제 파트너십 강화와 가공 역량 확대를 지속가능하고 탄탄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국제협력을 통한 투자 및 기술 다변화

호주는 공급망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국제협력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미국 주도의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다자 협력에 참여해 회원국과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프랑스·영국·캐나다 등과는 '지속가능한 핵심광물 동맹'을 맺었다. 또 국제에너지기구(IEA) 산하 '핵심광물작업반(CMWP)', EU의 '유럽핵심광물연합(ERMA)' 등 다양한 협의체에도 참여하며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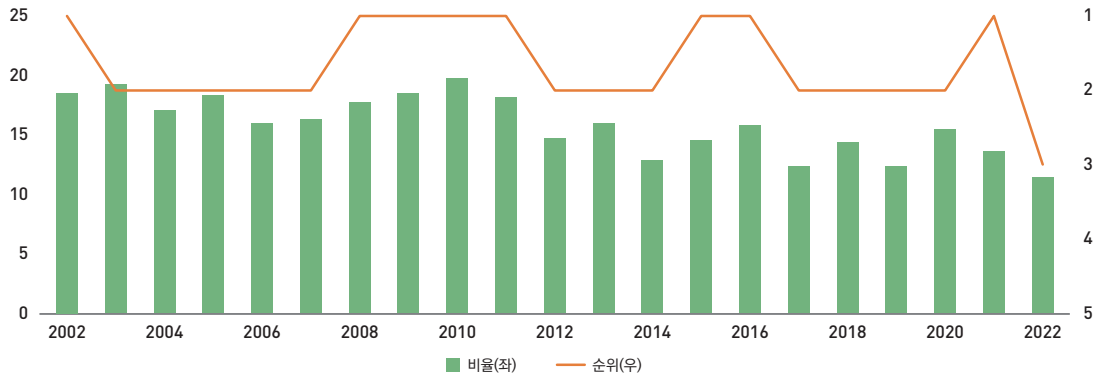
양자 협력도 활발하다. 호주는 자국 핵심광물 전략 보고서에 한국, 미국, 일본, 영국, 인도, EU 등 6개국을 주요 협력국으로 지정하였다. 이들 국가와는 희토류 공급망 구축, 중국 수출 규제 대응 등 실질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자원 개발과 공급망 안정, 기술 역량 강화까지 동시에 도모하고 있다.

● 한-호주 기술협력: 상호 보완과 공동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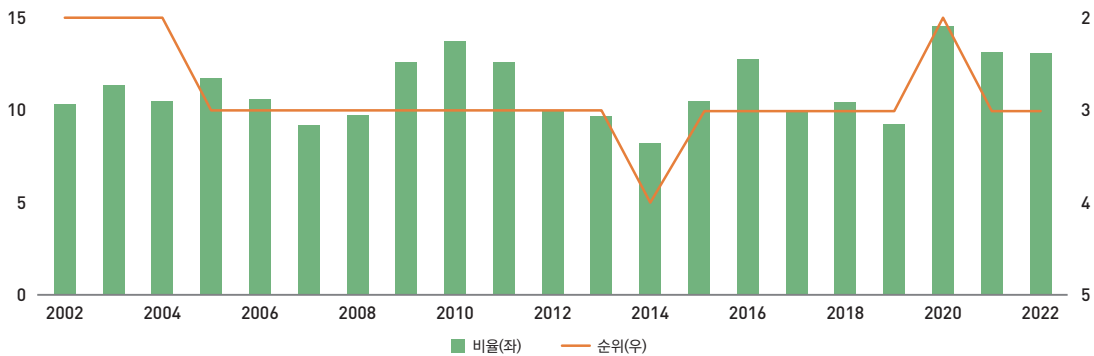
호주는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가니즈, 희토류 등에서 세계 상위권 매장량을 보유해, 한국이 지정한 33종 핵심광물 중 상당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그림1] 한-호주 간 핵심광물 수출입 비율

한국의 핵심광물 수입에서 호주 비율



호주의 핵심광물 수출에서 한국 비율



주: 핵심광물은 WTO 분류 기준 사용.
자료: CEPII 무역데이터를 이용하여 계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자원 기반인 호주와 기술 기반인 한국이 상호 보완적 파트너라는 것이다. 호주는 안정적 광물 공급을, 한국은 첨단 제조 기술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1980년부터 이어진 한-호주 에너지자원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양국은 이미 오랫동안 공급망, 천연가스, 수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왔다.

● 기술협력으로 현실이 된 성과들

2021년, 양국은 핵심광물, 탄소중립 기술, 수소경제 분야 협력 MOU를 체결했다. 2023년에는 한국수출입은행과 호주 수출금융공사가 공동 금융지원 체계를 구축해 민간 자원

개발 투자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 서호주광물자원연구소(MRIWA)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핵심광물 전 주기에 걸쳐 R&D 협력으로 기술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탄소중립 기술협력을 위해 10년간 5,000만 호주달러를 투자하고, 한국 정부도 이에 상응하는 투자를 약속했다. 양국은 수소공급망,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저탄소철강 등 3개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선정해 공동 연구 개발과 실증사업을 추진하며, 핵심기술 상용화와 청정수소 경제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다.

민간 부문에서도 성과가 뚜렷하다. 호주의 종합 광물기업 ASM은 2018년 한국 KSMT의 지분을 인수하고, 2021년

개발협력
지식공유
동향 분석

국내에 생산법인을 설립해 희토류·타이타늄 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있다. 이는 기술이전과 현지화를 바탕으로 한국의 대 중국 광물 의존도를 완화한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

[그림2] ASM사 투자유치로 희토류 공급망 다변화

기존				
단계				
	채광	선광	산화물정련	금속&합금
기존				
단계				
	합금분말	자석	모터	전기차
신규				
	KSMT, KSMM 지원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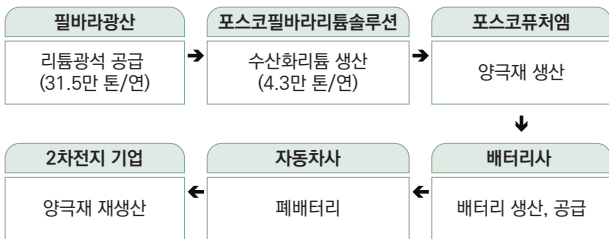
성과확산(원료공급-ASM社, 자석제조-성립첨단사업)

주: 전기차 모터 부분의 공급망 다변화를 도식화.

자료: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내부자료: 희소금속 공급망 우수사례(KSMM) 기술개발지원 및 성과).

LG에너지솔루션, SK온, 포스코 등 주요 기업 또한 호주 자원기업과 장기 공급계약 및 지분 투자를 체결해 리튬, 니켈, 코발트 등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확보했다. 2023년에는 청정수소·암모니아 생산 등 MOU 5건이 추가로 체결되었고, 이러한 협력은 미국 IRA 요건 충족과 공급망 리스크 완화에도 실질적 효과를 내고 있다. 2024년에는 청정수소와 재생에너지 분야까지 협력 범위가 확대되면서 광물 공급망과 에너지 전환의 연계도 더욱 강화됐다.

[그림3] 포스코필라미네랄스 합작법인 리튬 자원순환체계



자료: 저자 요약.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술협력의 가치

글로벌 공급망 회복력은 개별 국가만으로는 확보할 수 없다. 호주는 자원 보유국으로서 기술 내재화와 국제 연대를, 한국은 수요국으로서 산업·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전략적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ASM-KSMT 기술이전, 금융기관 공동 투자, 전 주기 R&D 협력 등은 자원과 기술의 결합을 통한 실질적 성과이며, 공급망 리스크 완화와 산업 생태계 강화에 기여한다. 앞으로 한국은 호주 등 전략적 자원국과의 협력 확대, 국제표준 수립, 공동 기술개발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공급망은 단순히 산업 협력을 넘어 국제협력과 산업안보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기술협력은 자원 보유국과 수요국을 연결하며, 미래 성장의 전략적 열쇠가 될 수 있다. ▮

주: 상세한 내용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제개발협력의 역할 및 방향: 기술협력을 중심으로(한국개발연구원, 2024)" 참조.



[2024/25 온두라스 II KSP] 인프라 및 교통정보시스템 개발 전략 수립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정책자문2팀
연구원 서 예 주
yeju@kdi.re.kr

● 온두라스의 도로 인프라와 교통정보시스템

도로는 단순한 이동의 문제를 넘어 국가 경제와 국민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현재 온두라스의 도로 포장률은 겨우 23%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수도 테구시갈파와 일부 주요 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에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도로 인프라는 실제 인구 분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의 도로는 대부분 비포장 상태이며, 우기에는 진흙탕으로 변해 이동이 더욱 어려워진다. 열악한 도로 환경은 농산물 운송, 의료 접근성, 산업 경쟁력과 같은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

여기에 기후변화라는 변수까지 더해진다. 온두라스는 산악지형이 많고 허리케인과 홍수가 잦아 도로 유실이 빈번하다. 1998년 허리케인 미치(Mitch)가 강타했을 때 온두라스 도로의 70% 이상이 파괴되었고, 2020년 허리케인 에타(Eta)와 이오타(Iota)가 연달아 강타하며 도로 300개 이상과 다리 48개가 유실되었다. 피해 복구가 더디게 진행되면서 교통망이 정상화되기도 전에 또 다른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그림 1] 수도 테구시갈파와 경제중심지 산페드로술라를 잇는 CA5 고속도로



사진 출처: Youtube MARAVILLAS DE MI TIERRA.

[그림 2] 온두라스 시골 도로



사진 출처: Youtube Les Routes de l'impossible.

도로 인프라 부족은 온두라스의 교통 체계 발전에도 근본적인 제약이 되고 있다. 현재 온두라스는 교통량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기본적인 물리적 기반이 미흡해 국가 단위의 체계적인 교통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지 못하였다. 교통 데이터의 부재는 도로 개발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과 교통 혼잡 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적 접근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더불어 최근 경제 성장으로 차량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나, 그에 상응하는 도로 인프라가 확충되지 않아 심각한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주요 도시에서는 만성적이고 심각한 교통 혼잡이 일상화되었으며, 교통사고 사망률 또한 라틴아메리카 국가 가운데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온두라스는 단순히 도로를 더 만드는 것을 넘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로 설계, 체계적인 교통 정보 시스템 구축, 교통안전 개선 등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를 위해 2024/25 온두라스 II KSP “인프라 및 교통정보시스템 개발 전략 수립”은 네 가지 해결책을 제안한다.

2024/25 온두라스 II KSP: 인프라 및 교통정보시스템 개발 전략 수립

〈표 1〉 2024/25 온두라스 II KSP 정책 자문 개요

제안부처 #	주제
온두라스 인프라 및 교통정보시스템 개발 전략 수립	
온두라스 인프라 교통부	1 온두라스 도로 개발을 위한 전략과 정책
	2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도로 정책 개발
	3 온두라스 국가 교통 자료 수집을 위한 기본 설계
	4 온두라스의 교통안전 개선을 위한 정책 및 기술 제안

첫째,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로 개발 전략과 이를 위한 구체적인 자원 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온두라스 정부는 도로 건설과 유지관리 예산이 매우 제한적이며, 과거 부패 문제로 민관협력(PPP) 방식의 확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제개발금융기구 및 민간 투자 활성화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그림 3〉 온두라스 II KSP 고위정책대화에서 현황을 설명하는 인프라교통부 장관



둘째,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도로 설계와 체계적인 유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온두라스의 도로 대부분은 급경사의 비탈면과 열대 기후에 맞지 않는 포장 방식이어서 빈번한 산사태와 토석류 발생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예방적 도로 설계 기술을 참고하여 우수 배수시설, 계획홍수위를 고려한 교량 설계, 비탈면 보강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셋째, 국가 차원의 통합 교통정보시스템(DB)을 구축해야 한다. 온두라스는 현재 기관별로 중복 조사가 많고 데이터 관리가 비효율적인 상황이다. 한국의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KTDB) 구축 사례를 참고하여 전국 단위의 교통량 조사와

도로 상태 평가를 통합 관리하고,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가 교통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넷째, 교통안전을 개선하도록 현실적이고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온두라스의 교통사고 사망률은 매우 높으며, 주요 원인은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교통법규 미준수, 보행자 보호 인프라 부재이다. 특히 주말과 야간 시간대에 사고가 집중되며, 오토바이 운전자의 안전장비 미착용 문제도 심

각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교통법규 단속 강화 및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 동시에,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도 실행 가능한 컬러레인(Color Lane), 과속방지턱, 반사경 설치와 같은 시각적 및 물리적 안전시설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교통안전 교육, 면허관리 제도 개선, 스마트 횡단보도 등 첨단 교통안전 시스템으로 확장해 나가야 한다.

[그림 4] 2024/25 온두라스 II KSP 착수보고회



● 맺음말

온두라스의 도로 인프라 확충과 교통정보시스템 구축은 단순한 교통 환경 개선을 넘어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 구조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이다. 특히 농촌 지역 인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도시와 농촌 간 교통 접근성을 개선함으로써 의료, 교육, 시장 등 기본 서비스에 대한 형평성 있는 접근을 보장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 도심 지역의 만성적인 교통 혼잡과 높은 교통사고 사망률

을 해결하려면 인프라 확충뿐 아니라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교통 정책과 안전 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이번 KSP 사업을 계기로 온두라스가 더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통 인프라 전략을 수립하여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국가 전반의 성장 잠재력을 실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



중소기업 발전 지원을 위한 캄보디아 신용보증공사의 지식공유 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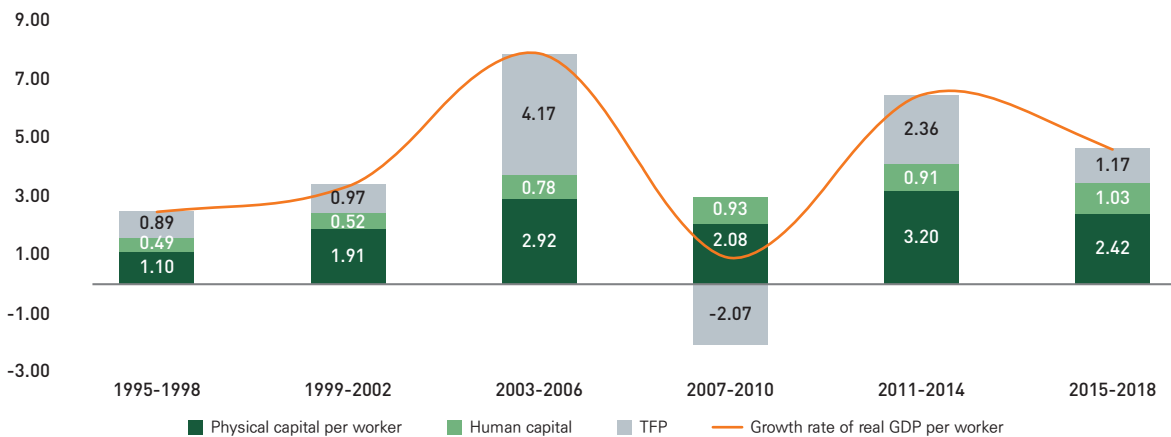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정책자문3팀
연구원 **최진아**
jinachoi@kdi.re.kr

중소기업 발전 지원을 위한 캄보디아 신용보증공사 설립 및 운영 현황

2024년 12월 19일 유엔총회 결의(A/79/L.49)에 따라 캄보디아의 최빈개발도상국(이하 LDC) 졸업이 확정됐다. 캄보디아는 향후 준비 기간 5년을 거쳐 2029년 LDC 지위를 공식

졸업할 예정이다. 정부 주도의 시장 개방과 산업 개발의 성과이다. 그러나 LDC 지위 졸업은 곧 특혜관세제도 등 LDC로서 부여받던 혜택의 소멸을 뜻하기도 한다. 향후 캄보디아의 산업 경쟁력 강화가 절실한 이유이다(그림 1 참조). 특히 캄보디아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고, 전체 고용의 70%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다.

〈그림1〉 캄보디아 성장회계 분석



자료: Penn World Table 10.01을 이용하여 계산.

1. United Nations. "Cambodia and Senegal scheduled to graduate from the LDC category in 2029."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December 19, 2024. <https://www.un.org/development/desa/dpad/2024/graduation-of-cambodia-and-senegal-from-the-ldc-category/>

2. UNESCAP. *Micr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ccess to finance in Cambodia*. 2022.



캄보디아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경제 발전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자 다양한 정책수단을 도입했다. 2020년 캄보디아 신용보증공사(Credit Guarantee Corporation of Cambodia, 이하 CGCC)의 설립이 대표적이다. 캄보디아 경제재무부는 코로나19 시기의 경제 쇠퇴로 경영난에 처한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고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CGCC를 설립했다. 중소기업이 성장하려면 적시에 적절한 규모로 자금이 조달되어야 한다. 그러나 금융기관은 신용위험이 높고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을 승인 및 실행하는 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많은 국가에서는 자국의 중소기업을 육성하고자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신용보증을 제공하여 자금 공급을 촉진하는 공적 기관을 설립 및 운영한다. CGCC도 신용보증을 중소기업 자금 공급을 촉진함으로써 그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설립 6년 차인 CGCC는 짧은 운영 기간에도 불구하고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CGCC는 보증상품 개발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개발 운영하고, 협약은행(Participating Financial Institutions, PFIs)들을 확장하고 있다. 2023년 CGCC는 캄보디아 최초 채권보증기관으로 인가받기도 했다. 이 같은 노력을 토대로 2025년 2월 기준 CGCC는 총 3,979건, 총 보증잔액 2억 7,400만 달러 규모 보증을 제공하는 성과를 기록했다.³⁾ 그러나 아직은 설립 초기 단계인 CGCC는 신용평가 및 리스크관리 시스템 미비, 전문 인력 부족 등 운영상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

● 캄보디아 신용보증제도 발전을 위한 지식공유 여정의 시작

2022년 10월 캄보디아 정부는 '캄보디아 중소기업 발전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공사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한 정책자문을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한국 정부는 사전타당성조사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를 거쳐 해당 사업을 2024/25년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이하 KSP)으로 선정했다. 2010년 양국은 캄보디아 금융부문을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KSP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바 있다. 과거의 협력 경험을 토대로 캄보디아 신용보증제도 발전을 위한 한국과 캄보디아 양국 간 새로운 지식공유 여정이 시작된 것이다.

2024/25년 캄보디아 KSP 사업 수행기관으로는 한국의 신용보증기금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1976년 설립된 중소기업 전문 정책금융기관이다. 과거 발전국가 시기 한국 정부 또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고 그 중심에 신용보증제도가 있었다.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제도 발전에 대한 한국의 정책 경험이 집약된 전문기관이다. 신용보증기금이 기관의 발전 과정에서 겪은 시기별 도전과제, 시행착오, 극복 경험은 한국 신용보증제도의 발전과 궤를 같이한다.

2024년 11월 26일 KDI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경제재무부 메이 완(Mey Vann) 차관, CGCC 노 리다(No Lida) 사장 등 핵심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그림 2). 착수보고회에서 과제연구자 3명은 세부주제별 연구 수행 계획을 발표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표 1 참조). 캄

3 Credit Guarantee Corporation of Cambodia (CGCC). CGCC Guarantee Progress as of February 2025. 2025.

보디아 중앙은행(NBC), 신용평가기구(CBC),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유관기관 및 국제기구 관계자들은 그들의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연구 방향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표1〉 2024/25 캄보디아 KSP 대주제 및 세부주제

구분	주제명	내용
대주제	캄보디아 중소기업 발전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공사 운영 개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금융접근성 개선 및 발전지원을 위해 설립된 캄보디아 신용보증공사의 운영개선 방안에 대한 한국의 정책 경험과 지식 공유
세부 주제 1	신용보증제도 운영 효율화를 위한 신용분석역량 제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증제도 운영상 보증 조사 및 심사 방법 개선과 고도화 방안 제시
세부 주제 2	캄보디아 신용보증공사 리스크 관리 체계 분석 및 강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증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효과적 리스크관리 체계 구축 방안 제시
세부 주제 3	캄보디아 중소기업 성장과 발전지원을 위한 신용보증제도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장기 금융·산업·중소기업 정책 발전 방향 제시 보증기관 지배구조 및 재원 조성 방식 등에 대한 분석 및 대안 제시

착수보고회 이후 확정된 연구 범위를 토대로 KSP 연구진은 △CGCC 신용분석 역량 제고 방안, △CGCC 리스크관리 강화 방안, △캄보디아의 신용보증제도 발전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025년 1월 연구진은 ‘현지세미나 및 세부실태조사’ 출장을 진행해 연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

집했다(그림 3). 3월에는 캄보디아 경제재무부, 비금융감독청, CGCC 등 3개 기관 소속의 실무자 8명을 한국에 초청하여 ‘중간보고회 및 정책실무자연수’를 개최했다. 연수단은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단지공단, 민간 보증기업 등을 방문하여 한국의 신용보증제도 운영 실무를 경험했다. 이상의 활동은 연구진이 도출할 정책제언의 적실성을 제고하고 캄보디아 정책에 반영할 가능성을 향상하고자 추진됐다.

● 앞으로 여정과 캄보디아 신용보증제도 발전의 미래

2025년 6월 KDI는 프놈펜에서 2024/25년 캄보디아 KSP 사업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종보고회에서 연구진은 CGCC 운영 개선 방안, 더 나아가 캄보디아 신용보증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을 발표한다. KSP 정책제언이 정책결정의 ‘증거’로서 캄보디아 정부가 건전한 신용 질서 확립과 포용적 금융 발전이라는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





디지털무역과 국제개발협력의 과제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개발연구실
총괄 김민정
mjk@kdi.re.kr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개발연구실
전문연구원 노다현
dh_noh@kd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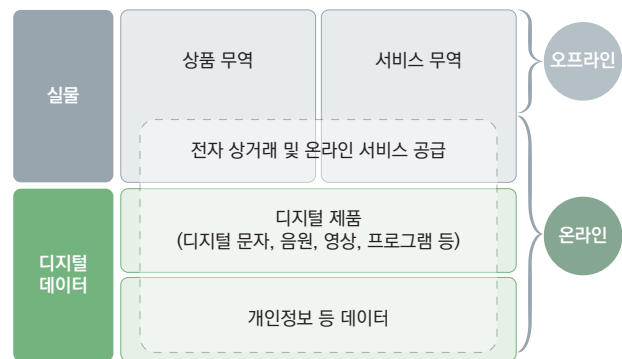
● 디지털 전환이 여는 새로운 무역 기회

퇴근 후 소파에 앉아 넷플릭스를 켜고 영화를 본다. 다음 날엔 쿠팡에서 클릭 한 번으로 필요한 물건을 주문한다. 일상의 풍경처럼 느껴지지만, 이 모든 경험은 ‘디지털무역’이라는 보이지 않는 흐름 위에 있다. 디지털무역은 상품과 서비스가 데이터 형태로 이동하고 거래되는 무역을 의미하며, 이미 전 세계 경제 질서를 바꾸고 있다.

디지털무역은 단순한 전자상거래에 머물지 않는다. 전자결제, 클라우드 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콘텐츠 유통, 물류 자동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디지털 경제 활동으로 이루어진 복합적인 구조다. 디지털무역은 전통적인 상품 및 서비스 무역과 달리, 데이터 흐름, 온라인 거래, AI 및 데이터 등 첨단 디지털 기술, 디지털 경제의 안전과 보안 등의 새로운 이슈와 관련이 높고, 기존 국제제도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이슈들을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 따라서 WTO 회원국들은 디지털무역 규범과 제도의 틀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제개발 협력의 영역에서도 개발도상국의 디지털경제 전환, 국제적 연결과 상호운영성 강화, 디지털무역의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지원하는 방안이 활발하게 모색되고 있다.

〈그림1〉 디지털무역의 개념과 영역



자료: 한국국제경제학회(2022, p.543), 권현호 외(2023, p.33)에서 재인용 및 일부 수정.

●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향한 디지털무역, 그러나 개발도상국이 마주한 현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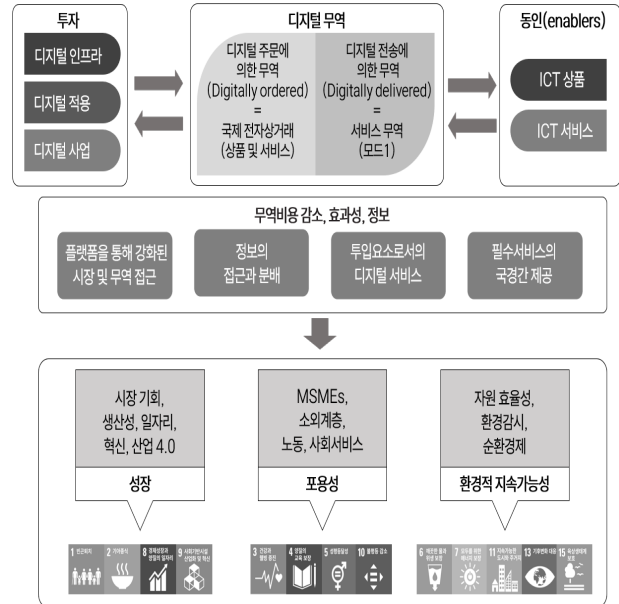
디지털 무역의 확대는 개발도상국에도 중요한 도약의 기회를 제공한다. 세계은행(WB)에 따르면, 무역의 디지털 전

환은 무역의 비용 절감과 더불어 국제적으로 거래 가능한 상품과 서비스의 범위를 확장시키며 중소기업이 해외 시장에 보다 쉽게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줄 것으로 분석된다. 개발도상국이 디지털 무역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성장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다.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역시 디지털 무역이 COVID-19 이후의 경제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무역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개발도상국에 유리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IMF, OECD, UN, WB, WTO가 2023년 공동 발간한 “개발을 위한 디지털 무역 (Digital Trade for Development)” 보고서에서도 디지털 무역이 개발도상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중요한 기회임을 강조했다.

디지털 무역은 경제 개발을 넘어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2>는 디지털 무역이 SDGs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보여준다. 디지털 무역과 SDGs의 관계는 경제, 사회, 환경의 세 가지 축으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경제적 측면에서는 무역의 디지털화와 데이터 기반 무역이 활성화됨에 따라 무역 비용이 감소하고, 시장 접근성이 향상되며, 생산성이 증대되어 전반적으로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와 일자리가 창출되고, 특히 청년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되어 사회적 포용성이 강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환경적 측면에서도 종이 문서 사용 감소, 물류 최적화를 통한 탄소 배출 저감 등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림 2> 디지털 무역의 지속가능개발에의 기여 경로



자료: ESCAP/UNCTAD/UNIDO(2023), p.3, 저자 번역.

그러나 모든 개발도상국들이 디지털 무역과 디지털 전환에 등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 많은 개발도상국이 디지털 인프라 부족, 낮은 디지털 문해력, 그리고 안전과 보호를 보장하는 디지털 경제 제도의 미비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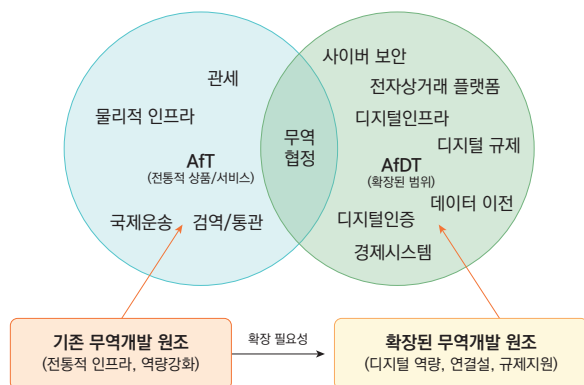
디지털 무역이 제공하는 새로운 기회와 잠재적 이익은 실현 가능성이 낮아 자칫 막연한 희망에 그칠 수도 있다. 디지털 경제 시대에서 데이터는 새로운 자산이자 경제활동의 핵심 기반이지만, 개발도상국들은 디지털 격차와 역량 부족으로 인해 디지털 무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은 경제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 무역을 위한 원조에서 디지털 무역을 위한 원조로의 확장

국제사회는 디지털 격차와 디지털 무역의 포용성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있다. 무역 원조(Aid for Trade: AfT)를 기반으로 ICT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생산성과 무역 역량 강화를 위한 디지털 기술 활용, 디지털 결제 시스템 도입, 전자상거래 확산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무역의 혜택이 특정 국가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하려면 개발도상국과 중소기업의 참여 확대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디지털 무역의 포용성을 강화하는 개발협력이 강조되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디지털 무역 참여를 촉진하고 그 혜택을 보다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해, ‘디지털 무역’에 초점을 둔 AfT의 개선과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점점 더 주목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디지털 무역을 강화하는 무역원조는 어떻게 추진되어야 할까? 디지털 무역을 지원하는 원조(Aid for Digital Trade: AfDT)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대표적인 프레임워크로 UN 무역개발회의(UNCTAD)와 세계은행(WB)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UNCTAD는 “모두를 위한 전자무역 (eTrade for All)” 이니셔티브를 통해 디지털무역 협력의 전방위적 구조를 제시하였다. 이 이니셔티브는 △전자상거래 전략, △ICT 인프라, △전자결제시스템, △무역원활화, △법률 및 규제 프레임워크, △기술역량 개발, △중소기업 금융지원 역량 강화의 7개 분야를 핵심 지원 분야로 포함하며, 이를 기반으로 디지털무역 준비도평가를 수행하고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고 있다. UNCTAD 이니셔티브에 앞서 WB는 ‘디지털 경제 5대 핵심 요소’를 제시했는데, △인프라, △플랫폼, △금융, △기술, △공공서비스가 주요 분야다. WB는 요소들을 기준으로 개발도상국이 디지털 경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층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 무역 분야도 중요한 지원 영역으로 포함된다.

〈그림 3〉 무역을 위한 원조(AfT)에서 디지털 무역을 위한 원조(AfDT)로의 확장



자료: 저자 작성.

이처럼 주요 국제기구가 제시하는 AfDT의 방향은 단순히 ICT 인프라 구축이나 신기술 이전이나 인터넷 보급에 국한되지 않는다. 디지털경제 생태계를 구성하는 전자결제, 법·제도, 인재, 플랫폼 경제까지 포괄하며, 통합적인 접근이 필수적임을 보여준다.

주요 공여국 정부는 디지털 무역의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발 협력의 범위를 확장하고, 실효성 있는 협력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무역 활성화



에 초점을 맞춘 개발 협력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략 수립시 이러한 사례들을 참고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국제협력기구(JICA)는 “개발을 위한 디지털(Digital for Development)” 정책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디지털 및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며 지속 가능한 개발을 도모하고 있다. 최근 디지털 무역과 관련된 주요 사업으로는 “보안 역량 강화 사업(Capacity Building for Information Security)”이 있으며, 이 사업은 △ 사이버 보안 정책 및 제도 수립 △ 관련 기관의 역량 강화 △ 중요 기반 시설의 보안 조치 및 사고 대응 역량 강화 △ 민관 파트너십 구축 △ 일반 국민의 인식 제고 △ 국제 협력 증진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개발 지원은 디지털 무역에 필수적인 ‘신뢰 기반 데이터 이동(Data Free Flow with Trust, DFFT)’ 환경 구축을 목표로 한다.

유럽연합(EU)은 “2030 디지털 컴퍼스(2030 Digital Compass)”와 “글로벌 게이트웨이(Global Gateway) 전략”을 기반으로 개발도상국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다양한 개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EU4Digital 이니셔티브”는 동유럽 국가들이 디지털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디지털 규범 정립, 전자 인증, 국경 간 디지털 서비스 확대 등 디지털 무역 활성화 및 기반 구축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포함하고 있다.

호주는 디지털 무역과 관련된 개발 원조에 가장 적극적이며 여러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 무역 지원 자금(E-commerce Aid for Trade Fund)”을 마련하여

인도-태평양 지역 내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고 있으며, △ 현지 규제 프레임워크 강화를 위한 기술 지원 △ 정부 및 민간의 디지털 무역 기회 활용을 위한 역량 구축 △ 맞춤형 교육 및 세미나 제공 △ 소외계층의 디지털 무역 참여 확대를 위한 마이크로 인프라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ASEAN-호주 디지털 무역 표준 이니셔티브(ASEAN-Australia Digital Trade Standards Initiative)”를 통해 ASEAN 역내 표준화된 디지털 무역 인프라를 구축하고 디지털 무역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다. 각국 표준 기관은 디지털 무역 표준 관련 지식을 공유하고, “디지털 거래 표준 적합성 작업 그룹(Digital Trade Standards Conformity Working Group)”을 설립해 개발도상국들이 디지털 무역 표준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디지털 무역 환경의 안정성과 예측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발협력을 연계해야

개발도상국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WTO 전자상거래 협상을 포함한 국제 규범 논의에 개발도상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돕는 것도 디지털 무역 관련 개발협력에서 중요한 의제다.

디지털 통상규범과 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의제(예를 들어, 데이터의 국경 간 자유로운 이동, 데이터 및 서버 현지화 요건 완화,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적용 등)에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입장차가 크다. 디지털 무역 활성화를 위해 자유로운 데이터 흐

름이 필수적이지만, 많은 개발도상국은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자국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디지털 전송에 대한 관세 부과를 주장하고 있으며, 디지털 주권 확보와 디지털 무역 자유화 사이에서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디지털 통상규범이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상호 호혜적 이익을 보장하는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디지털 통상 의제와 연계된 개발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현실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디지털 무역 관련 개발협력은 기존의 인프라 중심에서 규범 협력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ASEAN 역내 디지털 경제 통합 전략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ICT 인프라와 기반 강화가 주된 목표였으나, 최근에는 ASEAN Digital Economy Framework Agreement(DEPA)와 같은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채택하며 디지털 경제의 안전과 신뢰 확보, 제도 강화를 핵심 목표에 포함하고 있다. 단순히 기술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규제 조화,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디지털 무역 표준화 등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무역 관계를 더욱 공고히 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개발 협력의 수요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지털무역을 위한 KSP의 전략적 활용

IT 강국인 한국은 ICT 과학기술 및 인프라 강화 분야에서 ODA를 활발하게 추진해 왔다. 주요 공여국과 국제기구의

최근 정책 동향을 참고하여 개발도상국의 디지털 전환 지원을 확대하고 나아가 디지털 무역 확대를 위한 개발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통상정책과 연계된 무역 원조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무역은 디지털 기술 역량, 생산 및 비즈니스 역량, 무역원활화 지원 외에도, 데이터 산업과 규범, 사이버 보안, 개인정보 보호, AI 안전, 온라인 플랫폼 경쟁 제도 등 안전과 신뢰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될 때 활성화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KSP는 디지털 무역 분야에서 효과적인 협력 수단이 될 수 있다. 정책 자문을 기반으로 한 협력은 제도 정비, 전략 수립, 규범 조율 등 고차원의 정책 과제를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디지털 통상 역량과 정책 경험은 개발도상국에 실질적인 참고 사례가 될 뿐만 아니라, 디지털 무역 관련 KSP는 국제사회 논의 및 규범 정립에 공동 대응하며 한국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새로운 기회를 열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전환은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라 국제 질서의 재편 과정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개발도상국의 디지털 경제 참여를 촉진하고, 포용적이며 지속 가능한 디지털 무역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국제사회는 개발 협력의 중요한 과제로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무역 전환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

CID 소식

이봐, KSP 해봤어?



기아 글로벌사업관리본부

최준혁

eir22@naver.com

안녕하세요!

기아 글로벌사업관리본부에 재직 중인 YKSP 6기 최준혁입니다. 저는 현재 감사하게도 제가 인턴으로서 참여했던 슬로바키아 KSP 사업 경험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아의 유럽 지역 판매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시 학교 수업을 마친 후 급하게 YKSPians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해 국가를 배정받은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벌써 선배 YKSP로서 글을 쓰고 있으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번 자리를 통해 많은 분께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려드리고, 제 경험이 후배 YKSP분들께 다양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YKSP를 통해 슬로바키아를 만나다



먼저 제가 참여했던 2022/23년 슬로바키아 KSP '슬로바키아 산업 4.0과 중소기업 지원 방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디지털 전환, AI,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고부가가치화를 목표로 정책을 수립하고자하는 슬로바키아 정부의 효과적인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즈니스 모델 미비, 전문성 부족, 중소기업의 준비 미흡 등으로 기존 지원 정책의 효과성이 낮았고, 이를 극복할 실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현지에 진출한



기아 질리나 공장과 성우하이텍 공장을 벤치마킹 사례로 선정하고, 창원의 국립 산업단지를 모델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KSP 연구진분들과 함께 직접 생산 시설을 방문하고 실무진 및 슬로바키아 에너지청 관계자들과 회의를 진행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배웠으며,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작 그 시작은 작은 우연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KDI나 지식공유사업 등 개발협력 분야에 전혀 무지한 공대생이었습니다.

화학공학과 3학년 시절, 하루 종일 화학과 물리 실험에 매진하던 중 우연히 YKSP 6기 모집 공고 포스터에서 '국내외 출장'과 '기획재정부 주관 사업'이라는 문구를 보았고, 처음에는 호기심과 의구심을 동시에 가졌었습니다. 이후 KSP에 대해 홈페이지와 이전 사업 결과 보고서를 찾아보면서 '1년 동안 이 사업에 참여하면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겠다'는 생각과 함께 '언제쯤 해외 정부 관계자들과 직접 사업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올까?'라는 설렘을 느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 기업, 학술 분야가 모두 참여하는 규모 있는 다각화 사업에 대학생 신분으로 참여할 기회는 흔치 않았고, 사업 초기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입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물론 '내가 개발협력에 대해 아는 게 없어서 피해가 되진 않을까?', '3학년이 YKSP에 지원해도 괜찮을까?'라는 걱정도 들었지만, 이공계 학생으로서 제가 가진 유관 주제에 대한 나은 이해와 경험이 참여 KSP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원하여 합격한 후, 사업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가짐을 유지했습니다.

그 결과, 현지 출장에서는 슬로바키아 혁신·에너지청 관계자와 대화하면서 동부 도시 코시체의 데이터 센터와 사업 확장 가능성을 발견해 추가 논의 진행에 도움을 줄 수 있었

고, 현지 생산 공장 방문 시에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조언을 해 드리는 등 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사업 보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 KSP, 슬로바키아 그리고 자동차 산업

저는 화학공학을 전공하며 자동차, 정유, 화학, 반도체 등 다양한 제조업 공정에서 활용되는 생산라인 관리와 공정 설계 등 전반적인 제조 과정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특히 AI가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생산라인 자동화가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로봇틱스 투자와 함께 인공지능을 활용한 최신 공정의 선두 주자인 자동차 제조 산업에 관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하지만 주로 문제 풀이와 이론 위주로 학습하게 되는 학과 특성상, 그리고 코로나19 여파로 공장 실습이 대폭 제한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생산 현장을 보고 실무진과 교류할 기회를 더욱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운명처럼 슬로바키아 KSP를 접하게 되었고, 슬로바키아 기아 질리나 공장을 방문해 자동화된 공정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며 현지 주재원분들과 이야기를 나눈 시간은 정말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이론으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을 직접 보고 들으면서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AI와 빅데이터가 만능이라고 생각했던 저에게, 생산관리 관계자가 전해준 시스템 자동화 도입 시의 단점과 불편한 점, 실무에서 관리직이 겪는 엔지니어와의 갈등, 슬로바키아 현지 진출 제조업체들이 겪는 어려움 등은 대학교나 온라인에서는 접할 수 없는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이처럼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는 값진 경험을 하며 자동차 산업과 공정 자



동화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현재 개발협력 분야에 몸담고 있지 않아서 어떤 조연을 드려야 할지 많이 고민됩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제 YKSP 동기들의 상황을 모두 종합해서 한 가지 전해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바로 '최대한 많은 가능성을 열어두라'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분이 개발협력에 관심을 두고 있으시겠지만, 굳이 개발협력이라는 한가지 방향의 진로를 확정해놓기보다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최대한 많은 가능성을 열어두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제 동기들도 준비하거나 예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분야에 몸담고 있는 경우가 많고, 미래에 내가 어떤 직군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확정해놓으면 현장 경험에서 유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경험도 저마다 의미가 있을 텐데, 이를 내 미래 직업과 연관성이 없다고 단정 지어서 소홀히 하거나 제대로 향유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지금은 많이 후회되는 부분인데, '나는 이공계니까', '제조업 회사의 생산관리/공정설계 업무를 할 거니까' 같은 생각을 하느라 YKSP 활동 시 제 희망 직군과 연관된 업무 외의 YKSP 활동인 지역연구나 회의록 작성과 같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경험에 경중을 두지 않고 많은 경험을 하며 자신만의 다양한 색채를 채워나가다 보면, 언젠가 뒤돌아봤을 때 자신만의 고유한 멋진 그림 한 폭이 완성된 걸 보시게 될 겁니다.

후배 여러분들이 앞으로 써나갈 아름다운 미래를 응원하며 글을 마칩니다. ▣

행사

제3회 국제개발협력포럼: 미중갈등과 트럼프 재선 상황에서 동아시아의 공급망 재편



KDI 국제개발협력센터는 국내외 학계, 정부부처 및 민간 전문가를 초청하여 분야별 주요 현안을 파악·분석하는 토론의 장으로 국제개발협력포럼을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2025년 3월 20일부터 21일에 일본 IDE-JETRO(일본 무역진흥기구 아시아경제연구원)의 기무라 후쿠나리(木村 福成) 원장이 KDI에 방문하였다. 기무라 원장은 현재 게이오대학 경제학부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며, IDE-JETRO의 원장직을 맡고 있다. 이번 방문에서는 펠로우 세미나와 국제개발협력포럼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과 회복력 강화 방안에 대해 두 차례 발제하였다.

먼저 3월 20일에는 글로벌 공급망 세미나가 KDI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 세미나에는 ‘미중 갈등과 트럼프 재선 상황에서 동아시아의 공급망 재편’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

다. 특히 트럼프 2.0의 시대에 예상되는 관세 부과와 수출규제 등의 핵심 정책 수단을 검토하고, 공급망 안정화와 원칙에 기반한 무역 체제 수호를 위해 ASEAN 및 WTO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3월 21일에는 6층 화상회의실에서 동일한 주제로 국제개발협력포럼이 개최되었다. 이날 포럼은 현장 참석자를 포함해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기무라 후쿠나리 원장의 발표와 토론자 3명의 토론 세션으로 진행됐다. (토론자: 수출입은행 한종남 팀장, 산업연구원 민혁기 연구위원, KOTRA 개발협력실 박준식 차장)

먼저 민혁기 박사(산업연구원)는 대체가능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수단으로서 리쇼어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박준식 차장(KOTRA)은 ASEAN의 생산 역량이 여전히 제한적인 것을 감안할 때 새로운 글로벌 생산 거점으로 간주하기 어려우므로,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대응으로 첨단 제조업 분야의 대미 직접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펼쳤다. 한종남 팀장(수출입은행)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관련 분야에 중점 투자하는 ‘수출입은행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소개하였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은 경제안보 측면의 중요성이 높은 핵심 소재·부품 등을 국내에서 조달하는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1조 원 지원을 목표로 두고 있다. 7

행사

제4회 국제개발협력포럼: 에이전틱 AI 시대의 미중 기술경쟁



2025년 4월 8일, KDI 국제개발협력센터는 Radint Intel 창립자 마이클 프랭크(Michael Frank)를 연사로 초청하여 ‘에이전틱 AI 시대의 미중 기술경쟁’을 주제로 제4회 국제개발협력포럼을 진행했다. 이번 포럼에서 연사는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의 최신 동향과 그에 따른 함의를 다루는 발제를 진행했고, 참가자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연사는 발표를 통해 최근 미국과 중국 모두 AI 하드웨어 개발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는 반면, AI 텔런트(연구자, 개발자 등 고급 인재를 의미) 육성 및 투자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AI 기술 발전의 핵심 기반인 인재 확보 경쟁이 장기적으로 국가 간 기술격차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AI 관련 입법 및 개인정보 규제 수준에 따라 연

구와 혁신이 억제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정책 설계 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또한 향후 AI 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전망을 제시했다. 특히 ChatGPT와 같은 범용 AI 도구들의 역량이 점차 다양한 산업 현장에 확산될 것으로 내다봤으며, 이에 따라 특정 분야에 특화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형태의 서비스 모델이 부상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AI 기술이 단순 지원 도구를 넘어, 산업별로 고도화된 문제 해결 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임을 시사한다.

참가자 토론에서는 AI 기술 발전을 위한 국가와 민간 부문의 역할 분담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현 단계에서는 기술 개발과 혁신에서 ‘시간’이 ‘비용’보다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자원의 투입과 투자 부담은 민간 부문이 주도하고, 시간적·절차적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견해가 공유됐다. 구체적으로는 라이선싱 절차의 간소화, 오픈 데이터에 대한 높은 접근성 보장,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 등이 국가 차원의 핵심 지원 과제로 제안되었다.

이번 포럼의 초청연사 마이클 프랭크는 전략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AI 스타트업 Radiant Intel의 공동창립자이자 CEO로 재직 중이다. 과거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했다. ▣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주요 연구 및 협력 실적



2024년도 국제개발협력연구

#	과제명	주요내용
I. 개발협력 정책연구		
1	개발도상국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지식공유사업의 역할 및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부문별로 산업기술혁신 요인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 분석 ■ 한국 경험을 기반으로 개발도상국 경제상황과 성장단계에 맞게 자생적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한국형 산업기술혁신 표준모델(K-Innovation)”구축
2	뉴노멀 시대의 국제개발협력: 환경·에너지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요 개도국의 정책 분석 ■ 선진국-개도국간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 선진국-개도국간 기후금융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 에너지 전환의 효과성 분석 : 한국의 경험 ■ 에너지 전환을 위한 청정에너지 · 에너지 · 기후변화 대응 분야 협력방안
3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제개발협력 기술협력 역할과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배경 및 주요국의 전략 분석 ■ 한국의 공급망 구조 및 노출도 분석 ■ 핵심광물 확보를 통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술협력 관련 시사점 도출 ■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술협력의 역할 및 방향성 모색
II. 한국발전경험 체계화 연구		
4	중진국 함정과 한국의 정책적 대응: 지식공유사업에의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이 중소득국 단계에서 추진한 주요 정책(경쟁, 기술혁신, 고등교육)을 당시의 정책적 과제와 시행착오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중진국 함정 극복을 위한 시사점 도출
5	개발금융 경험 체계화 및 지식공유 고도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금융 관련 최근 동향 및 주요 의제 ■ 선진국의 개발금융 파트너십과 지원 전략 ■ 개발금융기관의 개발도상국 지원 효과 ■ 개발도상국의 개발금융기관 역량강화 체계화 방안 ■ 개발금융을 활용한 지식공유 고도화 전략
III. 개발협력성과평가 연구		
6	국제개발협력의 유형별 성과지표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선진공여국 및 공여기관 성과 관리를 위한 평가체계 검토, KSP 사업에의 시사점 도출, 평가의 디지털 전환 방안 모색 ■ 지식기반 개발협력 평가체계 구축 및 사례 분석
IV. 지역·국가 심층연구		
7	국제협력과 지식공유 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SP 사례 기반을 기반으로 협력국 및 분야를 선정하여 △정책·제도 현황 분석, △정책·제도 협력 사례 조사, △정책·사업 시사점 도출 및 제시 <p><small>* 우즈베키스탄 핀테크 규제 샌드박스, 말레이시아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 페루 보건분야 디지털 전환, 중남미 국가 순환경제 전환 등</small></p>
8	디지털 무역과 국제개발협력의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무역을 통한 개발(Digital Trade for Development) 관련 국제 논의 및 도전과제 분석 ■ 디지털무역 협정 분석 및 협력의제 유형화 및 체계화 ■ 디지털무역 관련 개발협력 현황 및 사례 조사 ■ 디지털무역 원활화 및 개발도상국 디지털무역 발전 지원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의 과제와 추진방향 제시



국제협력과 지식공유(Sharing Knowledge, Sharing the Future) (최근 3년)

연도	세부 내용
2024	국제협력과 지식공유 2024: 복합위기의 해결방안 모색 ■ 디지털 금융 분야 국제개발협력 개발효과성 증진 방안: 우즈베키스탄 핀테크 금융규제 샌드박스 KSP 사례를 중심으로 ■ 말레이시아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 ■ 페루 보건 분야 정책 현황 및 개선 방안: 디지털 전환을 중심으로 ■ 우루과이 플라스틱 순환경제
2023	국제협력과 지식공유 2023: 협력국 사례연구 ■ 폴란드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과제: 정책환경을 중심으로 ■ 불가리아 연구개발 현황과 시사점: 소피아테크파크 산학연 협력사례를 중심으로 ■ 세르비아 공공부문 디지털 전환: 혁신기술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 신용보증제도 사업 기획 시사점: 베트남 신용보증제도를 중심으로
2022	국제협력과 지식공유 2022: 뉴노멀시대의 스마트정책 사례 ■ 기후변화 대응 ■ 행정 ■ 재정 ■ 농업 ■ 생산 ■ 교육 ■ 헬스케어



국제협력사업

협력기관	연도	사업명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DB)	2023	■ Beyond Boundaries: Navigating the Digital Landscape for a Green and Inclusive Future
아시아개발은행(ADB)	2021	■ 스리랑카 국가개발계획 지원
아시아생산성기구(APO)	2024	■ 스리랑카 국가 생산성 마스터플랜 개발
	2024	■ APO Productivity Outlook 2025
	2023	■ APO Productivity Outlook 2024
	2022	■ 파키스탄 국가 생산성 마스터플랜 개발
	2022	■ 중고소득국의 생산성 향상과 경제구조전환에 대한 정책연구
	2022	■ APO Productivity Outlook 2023
	2021	■ APO Productivity Outlook 2022
	2020	■ 베트남 국가 생산성 마스터플랜 개발
	2020	■ 라오스 국가 생산성 마스터플랜 개발
세계은행(WB)	2021	■ COVID-19의 외국인고용허가제(EPS)에 대한 영향
	2019	■ 노동시장 수요변화에 따른 숙련도 제고 정책연구사업
	2019	■ 글로벌경제성장기금(GFGD) 사업 3차(카메룬, 서부발칸)
	2018	■ 글로벌경제성장기금(GFGD) 사업 2차(10개국 개별 사업 및 성장 모형, 공기업 개혁 연구)
	2017	■ 글로벌경제성장기금(GFGD) 사업 1차(8개국 개별 사업 및 거시경제, 포괄적 성장 연구)
미주개발은행(IDB)	2021	■ IDB Invest 협력사업: 한국의 디지털 전환 및 생태계 연구
	2020	■ 라틴아메리카와의 한국 인프라 서비스 지식공유 및 공동연구
유럽부흥개발은행 (EBRD)	2022	■ 이집트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 연수 · 연구
	2018	■ EBRD-KDI 공동 민관협력(PPP) 지식공유 콘텐츠 개발사업
유엔개발계획(UNDP)	2017	■ KDI-UNDP 에티오피아 국가계획위원회(NPC) 15개년계획 정책자문 사업
적도기니 재정경제기획부	2019	■ 적도기니 국가개발계획 자문사업
아부다비 개발기금(ADFD)	2017	■ 아랍에미리트 ADFD 수출금융프로그램 타당성조사 사업

국제 행사



연도	협력기관	행사명 및 내용
2024	세계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DI-세계은행 녹색성장세미나 일시/장소: 2024년 2월 28일 / 워싱턴D.C. 주제: Green Transition Strategy, Green Transition Financing, Carbon Pricing 등
	브루킹스연구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DI-Brookings Joint Seminar 일시/장소: 2024년 10월 22일 / 워싱턴D.C. 주제: Digital Technology, Inequality, and Global Economic Convergence
	AD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 글로벌 포럼 일시/장소: 2024년 12월 17일(화) / 동경 주제: 글로벌 공급망과 지속가능발전
2023	브루킹스 연구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DI-Brookings Joint Seminar 일시/장소: 2023년 4월 11일 / 워싱턴D.C. 주제: Productivity in a Time of Change
	AD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DB 연차총회 “한국 세미나의 날” 일시/장소: 2023년 5월 2일 / 인천 송도 주제: 아시아 복합위기 대응 방안, 글로벌 공급망개편과 아시아 역내 협력 강화, 디지털 전환, 코로나 19 이후 재정관리체계 등
	AD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DB 연차총회 부대행사“KDI-ADB 공동세미나: 디지털, 기후, 그리고 회복력” 일시/장소: 2023년 5월 4일 / 인천 송도 주제: 디지털 전환과 기후 효과
	세계은행 TDL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 KDI-WB TDLC 공동 글로벌 포럼 일시/장소: 2023년 11월 17일 / 인천 송도 주제: 개발도상국 발전 제약요소 및 기회 분석, 도시 정책, 지식기반 발전 등
202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 KDI 글로벌 포럼 일시/장소: 2022년 10월 21일 / 서울 주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디지털 정책 사례와 협력
202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 KDI 글로벌 포럼 일시/장소: 11월 19일(목) 14:00~16:00 / 서울 주제: 개발을 위한 혁신 *기업과 혁신, 도시와 혁신, 기술과 혁신

KDI CID 지식공유브리프 발간지 목록

2025년 1호 	<p>이슈톡 한국경제 발전과정에서 금융의 역할 / 고승범 지속가능교통을 위한 저탄소 간선급행버스체계(BRT) / 강성철 </p> <p>동향 분석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한 민간협력사업(PPP) / 구석모  2025년 세계건설시장 유망 섹터 전망 및 시사점 / 정지훈</p> <p>KSP 포커스 튀르키예: 수입대체산업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 / 윤근영 페루: 모든 이해관계자의 편익을 증진하는 FTA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 박미서</p> <p>CID 연구포커스 개발도상국 개발금융 역량강화체계화 및 지식공유 고도화 방안 / 김대용, 이진이</p>
2024년 특별호 	<p>이슈톡 기후위기와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논의 동향 / 강성진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와 미국 대선 후 산업·통상정책 / 박지형 디지털 격차와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정책동향 / 김서용</p> <p>동향 분석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한선이 </p> <p>KSP 포커스 [2023/24 불가리아 KSP] 미래에 대응하는 불가리아 건설사업의 도전과 기회 / 김지원</p> <p>CID 연구포커스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제개발협력: 기술 협력을 중심으로 / 방호경 신용보증제도 사업 기획 시사점: 베트남 신용보증제도를 중심으로 / 최다인, 하지유</p>
2024년 3호 	<p>이슈톡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보건의로 패러다임 변화와 KSP 사업에 대한 시사점 / 최희주 유럽 공급망 실사지침과 우리 기업의 대응 / 오범택 </p> <p>동향 분석 한국 주택정책의 성과와 KSP 사업에 대한 시사점 / 권혁신  개발효과성 담론에 대한 한국의 기여: GPEDC와 부산포럼을 중심으로 / 송지선</p> <p>KSP 포커스 헝가리 EIPP: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로의 전환 / 최효정, 안치영</p> <p>CID 연구포커스 불가리아 연구개발 현황과 시사점: 소피아테크파크 산학연 협력사례를 중심으로 / 남보라, 김하아람</p>
2024년 2호 	<p>이슈톡 기후 문제에 대한 개도국의 시각 / 정홍상  디지털헬스케어의 중요성 및 지식공유의 의미 / 강재현</p> <p>동향 분석 국내 수소산업의 동향 및 시사점 / 이슬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경험의 지식화와 수도이전 국제협력 추진방안 / 방설아 </p> <p>KSP 포커스 [2023/24 칠레 KSP] 병원 대기 끝에 죽음이 아닌, 회복과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 홍기현</p> <p>CID 연구포커스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실현을 위한 ESG, 무역을 위한 원조(AfT)의 역할 및 정책과제 / 김대용, 황서영</p>

<p>2024년 1호</p> 	<p>이슈톡 ESG와 국제개발협력 / 정무경 해외 투자개발형 사업 발주 확대에 따른 대응전략 / 정지훈 </p> <p>동향 분석 순환경제로의 전환, EU는 어떻게 추진해 가고 있나? / 박상우 중동정세와 향후 전망 / 강문수 </p> <p>KSP 포커스 리투아니아와 문화창의산업 (Cultural & Creative Industries) / 안치영</p> <p>CID 연구포커스 아프리카 지역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과 국제개발협력 / 우혜영, 이소희</p>
<p>2023년 특별호</p> 	<p>2023년 지식공유브리프 특별호를 기획하며 / 김정욱</p> <p>이슈톡 2023년 국제개발협력을 되돌아보며 / 김은주 2024년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전망: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개발협력 패러다임의 변화와 개발금융의 역할 / 권율  기술협력 ODA,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협력 / 방호경 · 이소희</p> <p>동향 분석 2023년 동남아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특징 및 전망 / 이요한  2023년 아프리카 ODA의 주요 특징 및 전망 / 김은경  2023년 중남미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특징과 전망 / 정상희  글로벌 복합위기 시대, 일본의 개발협력 과제와 새로운 대응: 2023년 개발협력대강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 김은지 </p> <p>KSP 포커스 페루 경제특구의 외국인직접투자유치 로드맵 수립 / 윤근영</p> <p>CID 연구포커스 탈탄소 기술 품목의 무역저해요인 분석 및 지식공유사업에 대한 시사점 / 방호경</p>
<p>2023년 3호</p> 	<p>이슈톡 핵심광물 자원부국과의 개발협력 전략 / 김연규 해외건설기업 진출현황 및 시사점 / 정창구</p> <p>동향 분석 국제협력 플랫폼, KSP의 의미 / 이미연 유럽연합의 개발도상국 디지털 분야 개발협력 / 오정은 </p> <p>KSP 포커스 글로벌 복합위기 시대, KSP 사업 선정의 현황과 과제 / 이세훈 베트남 창업생태계의 현주소와 단기적 개선 방안 / 서규혁</p> <p>CID 연구포커스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국제개발협력: 디지털 편 / 이진이</p>
<p>2023년 2호</p> 	<p>이슈톡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사후관리가 왜 중요한가? / 안충영  ESG 연계 개발협력과 민간기업의 참여 / 이준희 </p> <p>동향 분석 기술협력사업의 PDM 활용 개선방안: 지식공유사업을 중심으로 / 강경재 보건의료의 철의 삼각(Iron Triangle)과 스마트 헬스케어 / 김준</p> <p>KSP 포커스 KSP 주제분류체계 개편 배경 및 주요내용 / 노보배 [우즈베키스탄 KSP+]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정책자문 / 한재현</p> <p>CID 연구포커스 국제개발협력 생태계 확대를 통한 국내외 청년의 글로벌 기회 확대 / 우혜영</p>

<p>2023년 1호</p> <p></p>	<p>이슈톡 기술패권 경쟁시대의 국제개발협력 방향 / 임호열  글로벌 불황에 대한 안정망, 국제개발협력 / 성한경</p> <p>동향 분석 글로벌 복합위기 시대, 개발협력 사업추진 방식의 변화 / 김은주  스마트 생산 분야의 개도국 정책자문 수요와 정책 제언 방향 / 이재광  COP 27 손실과 피해의 주요 합의사항 / 황금물결</p> <p>KSP 포커스 우즈베키스탄의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핀테크 육성 / 유성희</p> <p>CID 연구포커스 지속가능하고 통합적인 국제개발협력 및 지식공유를 위한 정책과제 / 김대용, 이소희</p>
<p>2022년 3호</p> <p></p>	<p>이슈톡 개도국의 혁신투자는 다다익선인가? / 정성철  우리나라 '정책자문 ODA 사업'의 과제와 방향성 / 김성규 </p> <p>동향 분석 개발협력평가와 변화이론(Theory of Change): 가능성과 도전과제 / 홍문숙 아프리카의 정당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효과적 재정지원 방안 / 김유나, 홍은선</p> <p>CID 연구포커스 국제협력과 지식공유 / 김정욱, 윤지희 중미공동시장의 경제적 효과 및 한국의 중미 개발협력에 대한 시사점 / 방호경</p>
<p>2022년 2호</p> <p></p>	<p>이슈톡 세계 식량 위기와 국제개발협력 / 이준원 포스트-코로나 세계에서의 KSP의 중요성 / 윤석현</p> <p>동향 분석 COVID-19 이후 디지털 전환과 ODA / 김지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장 메커니즘과 비시장 접근법 논의 동향 / 황금물결 </p> <p>KSP, EIPP 포커스 [불가리아 KSP] 디지털 혁신산업단지로의 전환 전략 수립 / 한재현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의 추진 배경 및 특징 / 김하아람</p> <p>CID 연구포커스 연결성과 국제개발협력 / 홍성창</p> <p>YKSP 스토리/CID 소식 YKSP, 그것이 알고 싶다 / 이태연</p>
<p>2022년 1호</p> <p></p>	<p>이슈톡 국제개발협력의 본질과 한국 개발협력체계 발전방향 / 정혁 보호주의 진영화' 시대의 도래가 한국 개발협력에 던지는 함의와 과제 / 김양희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법제: 녹색성장기본법에서 탄소중립기본법으로의 전환 / 장은혜</p> <p>동향 분석 KSP 고도화 전략과 지식공유사업법(가칭) / 홍성창, 김서영, 이미연 국제탄소시장과 ODA 활용 동향 / 김예림</p> <p>KSP, EIPP 포커스 [페루 KSP] FTA 양적 확대에서 질적 활용으로, 페루에게 전하는 한국의 경험 / 김지원 · 윤근영 [세르비아 KSP] 도시개발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 송지은</p> <p>CID 연구포커스 2021 CID 국제개발협력 연구 / 우혜영</p>

 는 KDI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해당 게시판으로 연결,  의 경우 해당 유튜브 영상으로 연결됨.



독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지식공유브리프는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의 원고 기고를 받습니다.
(소정의 원고료가 있습니다)

문의 김다은 연구원(044-550-4475, dek@kdi.re.kr)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발행처 KDI 국제개발협력센터(30149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263)

발행인 김정욱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편집장 방호경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개발연구실 전문위원

편집위원 김대용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개발연구실장 · 김민정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개발연구실 총괄

편집간사 김다은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개발연구실 연구원

문의 044-550-4475, 044-550-4280

※ 이 자료는 국제개발협력/지식공유 현안에 대한 이해증진과 국제개발협력센터 업무/성과 홍보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한국개발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